

## 시나리오

### S#1 학교 (풋살장 / 2022.10.07.)

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공이 굴러간다.  
누군가의 발에 의해 공이 힘차게 차여진다.

‘퍽-’

정우와 대성의 머리가 부딪힌다.  
주변 친구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정우가 잔디 위로 넘어진다.

(블랙에 빠 소리)

### S#2 야외 (거리)

대성이 하품을 하며 걸어 나오다 앞에 있는 인물을 보고서 뛰기 시작한다.  
대성이 어깨에 손을 올리자 화들짝 놀라는 정우  
그의 손목에는 워치가, 귀 위로는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다.  
대성은 정우와 눈을 맞추며 큰 목소리로 말한다.

대성 | 학교 가는 거지? 같이 가자.

하지만 정우는 대성을 잠시 보더니 손을 쳐 내고 혼자 앞으로 걸어 나가버린다.  
대성은 다시 정우의 옆에 붙어 말을 건다.

대성 | 역시 오늘도 쌀쌀 맞구나~

정우의 위치에 긴 진동이 울린다. 휴대폰을 확인하니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이다.  
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으려다 멈칫한다.

그때 휴대폰을 가져가 전화를 받는 대성

대성 | (소리 볼륨을 낮추며) 네 어머니 저 대성이예요~ 아... (정우를 슬쩍 쳐다보며) 네 그럼요.

휴대폰을 돌려주는 대성에게 정우가 말한다.

정우 | 왜 내 전화를 니가 받아.

대성 | 어머니한테 연락 좀 드려. 걱정하시잖아.

정우 | (앞으로 걸어나가며) 신경 꺼.

대성 | 야. 같이 가!!

### S#4 학교 (교실)

공을 들고 정우의 반을 찾아온 대성

대성 | 정우, 풋살하자

정우는 대성이 들고 있는 공을 보고서 **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낀다.**  
눈을 꼭 감았다 뜬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한다.

정우 | 안 해. 너나 해.

### S#1 학교 (풋살장)

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공을 차고 있는 남학생들  
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정우의 눈에 남학생들 사이에서 공을 넣고 웃으며 뛰는  
대성이 들어온다.

한동안 정우의 눈은 대성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다.  
그러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.  
대성은 정우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정우는 무시하고 가버린다.  
그 모습에 생각이 많아지는, 이제는 지쳐가는 대성

엑스트라A | 뭐해, 빨리 와.

대성 | .. 어

### S#3 야외 (거리)

앞으로 먼저 걸어나가는 정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걷는 대성  
한참을 생각하다 휴대폰을 들고 정우에게 문자를 보낸다.

정우의 손목에 있던 위치에서 진동이 울린다.  
진동을 느끼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정우

‘너 자꾸 나 피할 거냐’

문자를 보고서 걷다 멈춰선 정우  
이때 주변이 점점 시끄러워 진다. 하지만 아무런 미동이 없는 정우  
정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온다.

대성 | 앞에 보라고 서정우!!!!

대성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다 정우의 팔을 잡는 순간  
킥보드가 정우의 옆을 빠르게 지나간다.

킥보드 넘어지는 소리가 나고서야 상황파악이 된 정우는 대성을 바라본다.  
그런 정우를 보던 대성은 넘어진 시민에게 다가간다.

대성 | 괜찮으세요?

그 모습을 보던 정우는 또 다시 빠르게 **심장이 뛰기 시작**하고 뒷걸음 치며 도망가듯 가 버린다.  
대성은 그런 정우를 바라본다.

#### S#5 정우 집 (조명 사용)

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향한 정우  
세면대 물을 틀어 투박하게 얼굴을 씻어낸다.

격한 세수로 옷이 젖어버린 정우는 온 몸에 힘이 풀린 채로 무릎을 가져와 쪼그려 앉고  
두 손으로 귀를 툭툭 치기 시작하다 점점 세게 쳐 낸다.  
그렇게 정우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계속된다.

#### S#5 대성의 집

정우에게 보낸 문자 화면을 보며 책상에 앉아있는 대성  
과거 정우와의 일화를 떠올린다.

#### S#5 정우의 집 > 과거회상 (2022.10.09.)

정우 집의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대성

대성 | 서정우!! 서정우!!!! 문 열어 새끼야!!!!

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망설이고 있는 정우의 귀에  
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열게 들려온다.

대성 | 서정우!!!!!!!!!!

서서히 열린 문과 그 앞에 서 있는 정우의 얼굴을 마주한 대성

대성 | 미친새끼야. 너 왜 전화를 안 받아!! 걱정했잖,

미간을 찌푸린 정우의 시선은 대성의 입으로 향해 있으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.  
그 모습을 바라보던 대성은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.

대성 | 야.. 너,

정우 | (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) 하 씨, 뭐라는지 못 알아 먹겠네 진짜.

대성 | (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미세하게 저어 보인다.)

정우 | 근데 넌 씨발 왜 멀쩡하냐. (헛웃음치며) 나만 병신됐네.

(잠시 망설이다) 그러니까 수비 적당히 하라 했잖아. 아니다, 가라.

믿을 수 없다는 대성의 표정과 거친 정우의 표정이 대조되고서 정우에 의해 문이 닫혀 버린다.  
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대성이다.

#### **S#5 대성의 집**

회상을 끝낸 대성은 크게 한숨을 내쉰다.  
책상에 놓여진 수화책을 뺀히 바라보며 책상 위로 손을 두드린다.

'탁- 탁- 탁-'

생각을 끝낸 대성은 책을 펼쳐 본다.

대성 | (손을 꼬지락 거리며) 이게 ..ㄱ... 이렇게가 나....

#### **S#5 정우의 집**

지쳐 누워있는 정우와 손목에 차여진 위치에서 진동이 울린다.

#### **S#6 공원 (밤)**

대성이 정우에게 책을 건넨다. 건네 받은 책이 수화책임을 알게 된 정우는 대성에게 화를 낸다.

대성 | 자, 선물

정우 | (책 제목을 보고) 적당히 해. 야 너는, 너는 내가 이렇게 된 게 그냥 우습지.

대성 | ..뭐?

정우 | 나 귀 먹었다고 동네방네 소문 내냐? 적당히 떠들어. 내가 보는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 
공이나 차고, 웃고 그냥 다 재밌지?

대성 |

정우 | 수화? 수화는 뭘 수화야. 괜한 오지랖 그만 부리고 너나 잘해.

뒤로 돌아선 정우는 대성에게 전해 받은 책을 쓰레기통에 던지듯 버리고서야 떠나버린다.

#### **S#3 야외 (거리)**

헤드셋을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는 정우와 뒤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잠시 정우를 쳐다보던  
대성은 정우의 옆으로 빠르게 지나가버린다. 정우 역시 이를 인지한다.

#### **S#4 학교 (교실)**

교실 안에서 책만 바라보고 있는 정우와 교실 밖에서 한 손에 공을 안은 채 지나가는 대성

#### **S#3 야외 (거리)**

친구들과 웃으며 걷어가는 대성의 뒤에서 홀로 조용히 걷는 정우의 모습이 대비된다.

#### **S#4 학교 (사물함)**

누군가 사물함을 향해 걸어간다.

사물함의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정우가 버렸던 수화책이 들어있다.

#### **S#4 학교 (교실)**

홀로 교실에 남아 공부하던 정우는 잠시 고민하다 서랍에서 책 한권을 꺼낸다.

서랍에서 나온 책은 당시 정우가 버렸던 바로 그 수화책이다.

수화책을 펼쳐 보는 정우는 주변을 살피는 동시에 손이 움찔거린다.

그렇게 홀로 수화 연습을 시작하는 정우이다.